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1.18.(화) 조간 2022.1.17.(월) 11:00	배포 일시	2021. 1. 17.(월) 06:00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장 최종욱 (044-200-5650)
		담당자	서기관 송장현 (044-200-5653)

115개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 해양수산부, 전국 단위 국가어항 통합개발 계획(2022~2031)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처음으로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개발계획(2022~2031)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115개소) 되어 있으며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항

어항은 과거에는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바다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지만, 현재는 어업 활동의 근거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져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항개발과 관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발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이 포함된 앞으로 10년 간의 전국 국가어항 통합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어항을 균형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로 출입하는 어선 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도 추가로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고, 경남 남해 미조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도 계획하였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로 만들고,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 해상 간이역 및 중간기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항 내 유휴수역에 설치한 소규모 요트·마리나 계류시설

특히,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에 따라 일관된 각 어항별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매뉴얼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115개 국가어항은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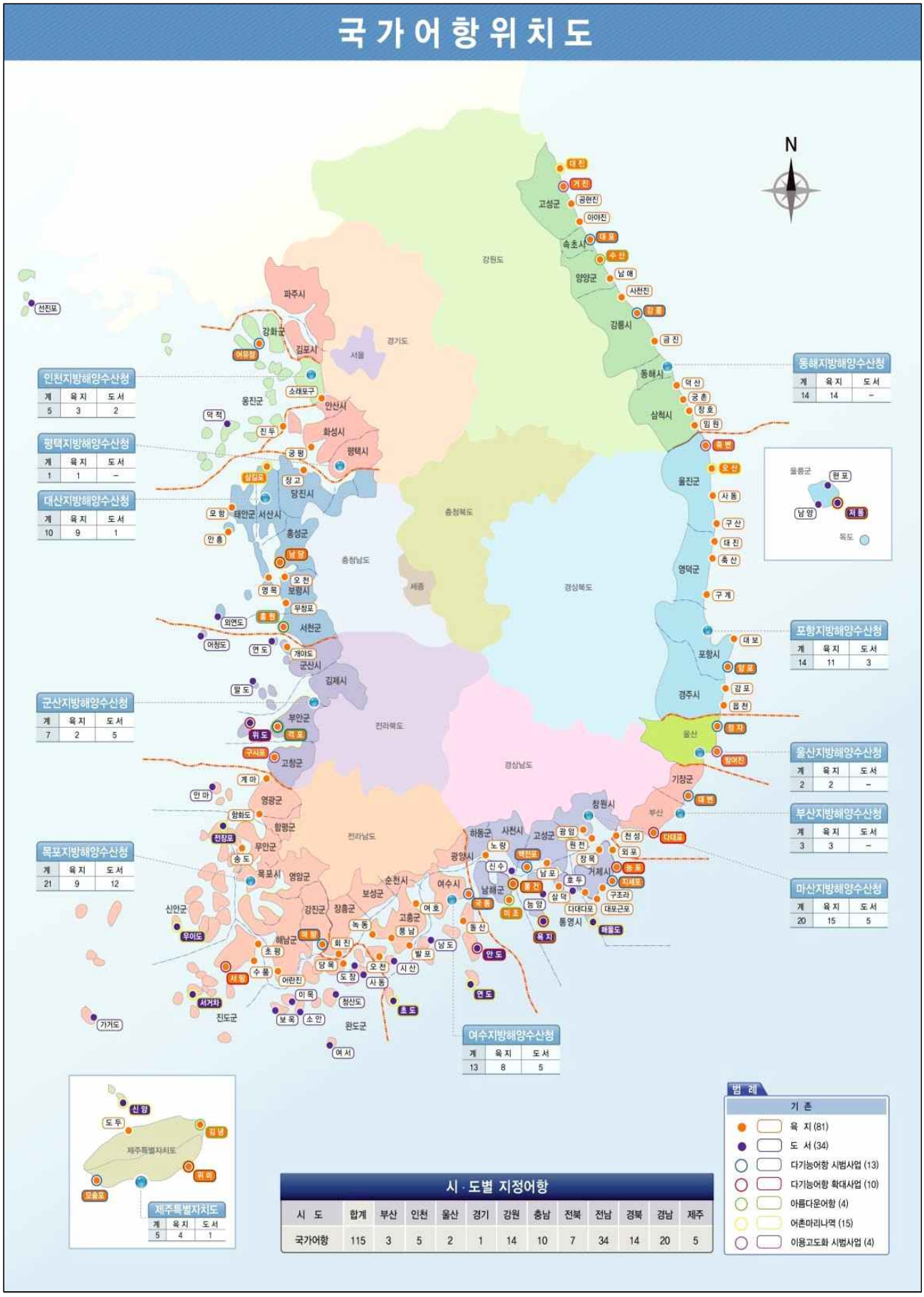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국가어항 개발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 요약**

비전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활력있는 경제 거점으로**

추진전략	주요내용
1. 균형있고 합리적인 국가어항 개발	
① 세력권 재설정 방안 도입	ㅇ 세력권 재설정 - 사천진항, 강릉항 등 39개소
② 적정시설 소요규모 분석 및 재산정	ㅇ 전국 국가어항(115개항)에 대한 시설 소요규모 분석
2. 안전하고 편리한 국가어항 개발	
① 국가어항 기본시설 확충	ㅇ 115개 국가어항 중 85개소 - 어선부두 및 기타 : 85개소 - 외곽시설 보강 : 37개소 - 정온도 확보 : 34개소 - 준설토투기장 : 광역1, 소규모4
② 부잔교 시설 본격 도입	ㅇ 부잔교 신설 - 양육용 37개소, 휴식용 51개소
③ 교통편익 증진시설 확대	ㅇ 교통편익 증진시설 - 우이도항, 남당항 등 6개소
3. 깨끗하고 매력있는 국가어항 개발	
① 국가어항 환경개선 사업 추진	ㅇ 115개 국가어항 중 46개소 - 여객터미널, 어구창고, 화장실 등
② 레저·관광 특화사업 추진	ㅇ 레저·관광 특화사업 - 레저선양장 신설 : 9개소 - 어촌마리나역 시설계획 : 5개소 - 어촌관광구역 설정 : 6개소

참고 2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



시·도별 지정어항

시 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어항	115	3	5	2	1	14	10	7	34	14	20	5